



시드니, 우리들의 푸른 기 억

By jung-soo park

8년 전, 우리는 시드니
채스우드에서 도착했습니다.
마치 하늘을 찌를 듯
솟아있는 아파트들을 보
며 아내가 말했죠. "우
리, 저기 왼쪽 첫 번째 집
부터 시작해볼까요?" 그
렇게 우리의 시드니 생
활은 마치 마우스로 왼
쪽을 클릭하듯, 한 집 한
집 옮겨 다니는 신기한
이사 놀이로 시작되었답
니다.





우리가 살았던 아파트
창문 너머로는 저 멀리
밭모랄 비치의 수평선이
아련하게 보였습니다.
집 뒤편으로는 보이지
않는 레인 코브 국립공
원이 펼쳐져 있었죠. 한
국과는 반대로 '노스 시
드니'가 부촌인 이곳의
지리를 익히며, 우리는
새로운 세상의 규칙을
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.



채스우드는 세상의 모든
맛이 모여있는 곳이었습
니다. 특히 기억에 남는
것은 딤섬 식당이었어
요. 종업원이 카트에 온
갖 종류의 딤섬을 싣고
돌아다니면, 우리는 손
짓으로 원하는 것을 골
라 먹기만 하면 되었죠.
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
음이 통하는 최고의 서
비스였습니다.





석사 공부를 하던 시절,
저의 통학로는 세상에서
가장 아름다운 길이었습
니다. 매일 아침 퍼시픽
하이웨이를 달려 시드니
하버 브리지를 건널 때
마다, 제 옆에는 늘 오페
라 하우스가 아침 인사
를 건넸습니다. 남들은
사진으로만 보는 풍경이
저에게는 일상이었습니
다.



박사 과정은 채스우드에서 기차로 세 정거장 거리인 맥쿼리 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. 호주 최초로 캠퍼스 안에 기차역이 있는 곳이었죠. 기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, 저는 새로운 지식을 향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.